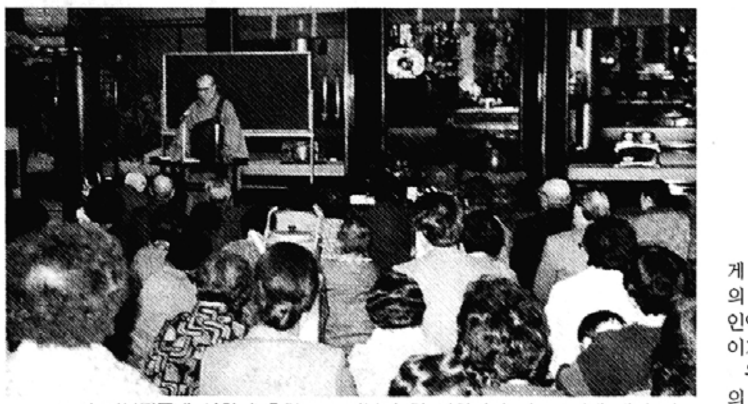
새아침 효란스님에 듣는다 수행한담

선업을 가득 채웁시다"



◇84년 일본진종계 사찰의 초청으로 일본의 한 사찰에서 원로스님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효란스님.

번뇌는 분별·집착서 생기니 끊겠다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태연하게 같이 놀아버리면 됩니다

門)을 가고 있는 교단의 승려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일본불교를 민족적인 감정에서도 그러하려니와 일본불교는 백제의 성왕(聖王)이 일본에 전파한 후배 격인 불교라는 생각에서 멸시하는 처지였고, 또한 일본 승려들은 막행막식을 하는, 계행이 없는 승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대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그리고 '아미타경'을 얻게 되었고, 그밖에 염불문에 대한 많은 불서를 얻게 되어 정토문(淨土門)인 염불문에 대한 의심이 풀리고 보니 중국불교에도 뚜렷한 염불문이 있었고, 한국불교에도 신라 때 뚜렷한 염불문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행동이 곧 業… 모든것은 나 하기 나름

"조금 손해나듯 사세요… 마음 편해져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라불교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니 신라의 원효스님께서는 신라 사회를 염불문 불교로 인도하시어 신라를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고, 소위 상근기 중생이나 하근기 중생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을 염불문을 통하여 구제하신, 부처님과 같은 성행(聖行)을 이루어놓으신 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효스님이 하근기 중생이라 염불문에 입문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이 업(業)과 연(緣)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업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들이 지은 잘못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업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다 업입니다. 업이란 우리들이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 집착하고, 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마치 카메라가 렌즈를 통하여 사물을 받아들여서 필름에 기록하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창고에 모두 저장됩니다. 그것을 업장(業藏, 업의 창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는 즐거움의 과보를 가져다주고, 악한 행위는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니 마음창고에 선업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선업이 즐거움의 결과로 나타나고, 악업이 고통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같은 업(同業)끼리 만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연(緣)이라고 합니다. 악업은 반드시 악업끼리 만나고 선업은 반드시 선업끼리 만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어느 곳에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뼈를 재탕 삼탕해 설렁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장사가 안되자 주인은 주방장의 솜씨가 없어 그렇다며 월급도 제때에 주지 않았어요. 이에 화가 난 주방장은 일부러 그 집을 망하게 하려고 국물을 진하게 끓이고 밥과 김치도 손님들에 듬뿍 퍼주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망하기는 커녕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인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앙심을 품고 주인에게 해를 주려고 했지만, 주방장의 행위는 거꾸로 주인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주방장과 주인과의 관계가 선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연은 악업의 인연이 아니면 선업의 인연입니다. 선업의 인연이라면 은인일 것이고, 악업의 인연이라면 원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만남에 있어서도 선업이 아니면 악업이라는 관계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져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업과 악업의 관계가 섞여져서 만납니다. 어떤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 하였을 때 그 관계가 반드시 선업이나 악업으로만 이루어진 관계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짓는 업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만나 그동안 쌓아놓았던 악업의 보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크다면 악업은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일 것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이 모두 나의 업이며 인연입니다. 그들을 귀히 여김이 선업을 쌓는 일이 됩니다.

누구나 진실하게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서운 고난이 따르는 법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성취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연(緣)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선연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시간이야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1년을 단위로 마무리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시간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은 우리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것 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니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또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93세 된 노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따라온 아홉 살 먹은 아이에게 나이를 묻고는, "나랑 동갑이네"했대요. 이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는 고민이 생겼어요. 스님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텐데, 어찌 나와 노스님의 나이가 같을까. 부모님에게 물어도 답변을 못해주니 답답할 수밖에요.

그 어머니가 나에게 찾아와 아이의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그 노스님과 우리 아이가 동갑일 수 있지요?"

"부처님이 생길 때 비로소 중생이 생기고,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겠죠. 그러니 동갑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과 중생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우도에 대해 물어요. 그래서 소꼬리를 잡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집착이 크다는 것이고, 소 등에 걸터앉아 피리를 부는 것은 번뇌를 초월해 마음이 즐겁다는 것이라고 얘기해 줬지요.

번뇌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인데, 끊겠다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태연하게 같이 놀아버리면 됩니다.

공자에 나오는 얘깁니다. 폭포 밑에는 물살이 크게 요동치니 물고기조차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사람의 머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아이쿠, 사람이 빠졌구나 하고 급히 뛰어가서 보니 폭포 옆에 어느 사람이 누워있어요. 폭포에 빠진 사람을 보지 못했소 하니, 내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되물어요. 공자가 물 속에 들어가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어떻게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 대답이 저절로 무릎을 치게 했습니다.

"물이 하자는 대로 맡겨두니까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같이 놀자는 경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 알아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안달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조금 손해나듯 사세요. 당장은 잃는 것인지 몰라도 마음이 편하니 이게 득이예요.

그러니 마음을 새로 내십시오. 93세 노스님과 어린아이가 동갑이듯이 중생이 곧 부처니까요.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최혜명

〈군불교진흥회 부회장〉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불심 지극한 할머니를 따라 고향인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면의 원효스님이 창건했다는 오어사에 다니면서 부터 시작됐다. 항상 절에가서 참배하고, 법문듣고, 염불하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학교다닐 때에도 군복무중에도, 사회에 나와 개인사업을 하면서도 나는 인연있는 절을 찾아다니며 시간이 나는대로 참선도 하고, 철야정진도 하면서 무작정 불제자로서의 종자를 키워나갔다.

미력하나마 불교공부를 조금씩 하다보니 차츰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 안정을 얻게 되었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휴일이면 가족들과 절을 찾아 청정하고 고요한 산사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불교관련서적을 구해서 읽으며 체계적으로 불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포교발원 등산길에 불서 나눠주고 군포교 중요성 절감…작은힘 보태

그러다 나같이 불교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고, 뭔가 궁금해 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불자로서의 인연을 맺는 포교활동을 하겠다는 원을 세웠었다. 그런데 그즈음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하던 사업도 잠시 접어두고 건강회복을 위해 혼자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좋고 공기좋은 산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래! 여기서부터 포교를 시작하자'는 생각에 산에 오를때면 배낭속에 약간의 음식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책들을 가득 채우고,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권 한권 나눠주었다.

이런 나의 행동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고, 책을 받고 돈을 주려는 사람, 돈이 없어서 책을 못받겠다는 사람 등 한동한 웃지못할 일도 참 많았다. 하지만 내게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 기쁘고, 절로 신심이 솟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그때 마침 현대불교신문을 통해서 전국불교산악회가 조직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길로 전국불교산악회 서울지부 '금강메아리' 회원으로 가입해 지도법사로서 산악인 불자들과 함께 매월 첫째 일요일은 서울 근교에 있는 산사를 찾아 산행과 참배를 하고, 셋째 일요일에는 성지순례를 겸한 산행을 하면서 국토청결운동도 하고 있다. 혼자서 산을 오르며 활동하던 때보다 더 크고 뜻있는 계획적인 활동을 하게되어 내가 처음에 서원했던 것 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한다.

포교활동을 하다보니 젊은층의 남성불자들이 숫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군인불자양성을 위한 일을 해보고자 군불교진흥회에서 군승단을 도와 군장병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면 여전히 군대는 불교포교의 무관심 지대임을 실감한다. 무관심과 재정적인 어려움, 조직의 열세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할 일 들이 너무도 많다. 타종교의 경우 종파를 초월해 단합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불교는 종파 따로, 사찰 따로 개인으로 저마다 각각으로 활동해 효과적인 포교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 어느 특정 종파에도 치우치지 말고, 범불교운동으로 군포교불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불사는 큰 절 짓는 불사보다도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또 미래에 법을 전하는 전사들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 한사람의 힘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군불자포교를 통해 젊은 남성불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나아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또다시 사찰신도회나 불자산악인회와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서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한다.

●초등학생도 읽는 초유의 〈금강경〉 해설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이 책에는
❶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❷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❸뜻을 세우고 소원을 이루는 최상의 과학적인 기도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를 모두 구현하는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한마디로 금강경 해설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명적인 해설서이다. 다양한 실생활의 실례를 넣어 경의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 것도 특이하지만, 3분 대승정종분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해석, 4분의 무주상보시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보시로 보는 관점은 기존의 해설서에서 보지 못했던 시원하면서도 독창성이 넘쳐 흐르는 내용이다. - 서울신문사 관리부장 박상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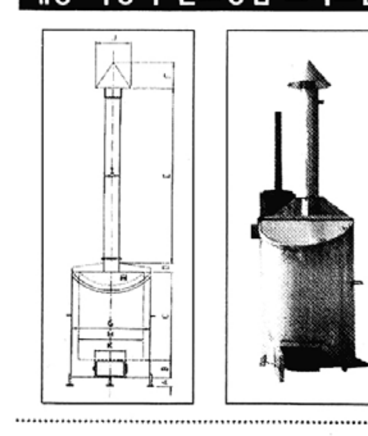
● 생활속에 금강경 실천 겨울수련회●
■일시 : '99년 1월 22일(금) 20시 - 1월 25일(월) 06시 (3박 4일)
■장소 : 「바른법연구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상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책을 읽고 내용에 공감한 독자
■인원 : 30명 ■회비 : 5만원
■신청마감 : 수련회 3일전까지
■주요프로그램 :
①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위한 〈금강경〉 독송
② 잠해탈을 위한 1일 3시간 수면 실천
③ 업보해탈을 위한 과학적인 소원성취 기도법 및 체험담 소개
④ 니시 가쯔조 건강법 실천 (절식생활, 냉온욕, 풍욕, 건강체조법)
⑤ 묵언 정진 생활화
⑥ 사찰 기본상식 및 교양강좌
■신청방법 : 전화 문의 바람
■문 의 처 : (0344)966-5877, 963-2872
■팩 스 : (02)324-3866

"아무리 훌륭한 법도 몸뚱이착으로 깨달은 것이면 바른법이 아니요. 평범한 듯 하여도 몸뚱이착 여의고 깨달은 것이면 바른법이다."
바른법연구원

사찰 쓰레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은 매연, 완전연소로 소각하십시오.

대용 하향식 소각로

대용 하향식 연소방법 소각로란?



1)과학적 설계로 제작된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되므로 동시에 많은 양을 투입하고 소각하여도 오나전 연소되어 매연이 적다.
2)밀폐된 상태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없다.
3)연소중 관리가 필요없고 이동이 용이하다.
4)소각로의 재질이 스텐레스(SUS) 316(표준형)으로 제작되어 영구적이다.
(특별 재질 주문 제작 가능. SUS 309, 310, 304, STEEL)
5)특히 산야등 산불의 위험이 있는 관광사찰

※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

모델명	재 질	금 액
DY-1	SUS316	₩1,250,000
DY-2	SUS316	₩ 850,000
주문형		

제조원: 대용 엔지니어링
서울 강서구 공항동 664-13

판매·문의 02)367-2680 / 745-8503(실상선원)